

여성스포츠심판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고찰

곽정현¹ · 이선희^{2*}

Proposal of the Present and Future Direction for Female Referees

Kwak, Jeong-Hyeon¹ · Lee, Sun-Hee^{2*}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female referees and provide basic sources to enhance their statu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where gender equality is an important issue. Throughout this research, we g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female referees account for about 15% among entire referees. As referees, they experienced any sort of prejudice and unequal treatment. Furthermore, there is little research on female sports. Yet most studies focus on various conflicts they mainly experience in such a field. Second, they are vulnerable to various violent conflicts like other female players. Media outlets focus on their appearance rather than competence. What is worse, they are exposed to sexual violence. Third, the current hiring referee system should be more transparent and objective as part of future policies to address and develop the present female sports referee system. In addition, appropriate tasks should be assigned to them after figuring out their personal merits, and impartiality should be highlighted in assigning referees in sports games. Policy found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an effort to secure their rights by carrying out studies on female referees and strengthening education on the human rights of referees.

Key words: Female sports, Female referee, Human rights, Solution, Policy

* wojojoo0757@naver.com

1. 가천대학교(Gachon University)/교수

2. 국민대학교(Kookmin University)/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디케(Dike)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그리스어로 ‘정의’ 또는 ‘정도(正道)’를 뜻하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을 말한다(성현숙 외 3인, 2019).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 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을 심판(審判)이라고 한다(국립국어원, 2014).”

1990년대 초반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속 주인공인 포청천은 송나라 당시 명판관이었던 포청천의 이야기를 극화한 것으로 당시 포청천의 판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의를 실현해 주었다. 특히 난해한 사건이나 지위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던 포청천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시비를 가려야 할 때, 공정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화자되고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 최고의 선(善), 정의(正義; justice)는 승리이며,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곽정현, 이선희, 2015). 스포츠에서 경쟁은 승패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승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규칙이 존재한다(서경화, 2019).

이러한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시켜 주는 사람, 즉, “운동 경기에서, 규칙의 적부 여부나 승부를 판정하는 그런 일이나 사람”(국립국어원, 2019)이 필요하며, 스포츠현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

이라고 부른다. 즉, 스포츠현장에서 심판은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적용시키고, 승패를 가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홍은아, 함정혜, 2013).

또한 심판은 스포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내재된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때로는 선수와 관중을 연결하기도 한다. 프로야구에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 심판의 동작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여지는 것은 장애인 선수를 배려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관중들이 심판의 수신호를 통해 경기를 이해할 수 있다(Robert, Weinberg & Richardson, 1987; 김성룡, 신석민, 이혁기, 2016). 이렇듯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현장에서 심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심판은 스포츠현장에서 볼 때 어찌면 권력자이다.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 승패가 뒤바뀌기도 하고, 선수 및 지도자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오심도 경기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심판의 오심을 당연시 여기고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판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스포츠의 주된 참여자가 남성에서 최근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심판으로 활동하는 여성의 비율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스포츠 현장에서 여겨졌던 성의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심판 현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성룡, 신석민, 이혁기,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심판 관련 연구는 약 100여편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공정성, 심판규칙 등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현 시점에서 여성심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최근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한 미투운동으로 여성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수, 지도자와 더불어 스포츠를 구성하는 여성심판 관련 연구는 학술지와 학위논문으로 발표된 연구 중 10편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미투운동 속 여성선수와 여성지도자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고 있는데 왜 여성심판에 대한 관심은 왜 없을까 하는 의문과 여성스포츠인들이 겪는 각종 부조리가 여성심판들에게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심판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양성평등사회라고 불리는 현 시대에 여성심판의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심판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심판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여성심판 현황을 조사하고, 여성심판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언론을 통해 표출된 여성심판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조사를 통한 여성심판의 현장 인식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여성심판의 현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 11월~12월까지 여성심판 7명을 대상으로 비 구조화

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전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다.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으며 범주화하였다.

둘째, 여성심판 현황조사

여성심판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9년 11월 기준 대한체육회 가맹회원단체에 공문요청을 통해 여성심판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여성심판에 대한 연구분석

여성심판에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논문검색포털 사이트(<http://www.riss.kr>)를 이용하여 2019년 11월 30일 “여성심판”을 키워드로 하여 논문을 수집, 분석하였다.

넷째, 여성심판에 대한 미디어 및 언론 분석

폭력에 노출된 여성심판의 위치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신문기사와 경기 중 여성심판의 중계 영상을 분석하였다.

2) 자료의 진실성

자료 분석 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성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소속된 전문가들은 질적 분석법 중 하나인 귀납적 분석에 훈련된 연구자로 체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3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과정 및 결과 해석 단계 등 연구의 절차마다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및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II. 여성스포츠심판의 현황

1. 여성스포츠심판의 현황

대한체육회에는 61개의 정회원단체와 6개의 준회원단체, 10개의 인정단체가 있으며(대한체육회, 2019), 심판의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심판위원회 경기규정 제정 및 경기단체 배포, 매뉴얼 작성 등과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심판제도의 관련규정을 제정하였다(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심판은 운동경기에서 승패와 관련된 판정을 하는 자로, 경기단체에서 종목별 자격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종목별 협회나 연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엘리

트선수출신, 체육관련 전공자, 기타 대상자에 대해 소정의 교육과정과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7 체육백서에 의하면 131,593명의 심판이 배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는 선수, 지도자들의 조사와는 달리 성별의 구분이 없었다.

〈표 1〉은 2019년 대한체육회 종목단체를 통해 확인된 일부 종목별 여성심판의 현황으로 축구가 전체심판의 수는 9399명이었고, 이 중 여성심판이 629명으로 나타났고, 육상이 전체 6189명이었고, 이중 여성이 1211명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들을 볼 때 여성심판의 비율은 약 15%로 나타났고 2016년 자료인 태권도의 경우 약 5%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선수의 비율이 약 23%, 지

표 1. 일부 종목의 여성심판, 선수, 지도자의 수

종목	심판		선수		지도자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카누	238	49	561	168	187	32
하키	121	25	1359	637	158	36
스쿼시	79	9	211	77	67	4
야구소프트볼	46	3	13095	486	1039	17
우슈	64	8	542	84	253	20
역도	823	127	1092	363	304	71
펜싱	371	92	1696	690	355	60
아이스하키	51	6	3266	425	322	9
축구	9399	629	25904	1650	1932	63
체조	324	194	1154	668	483	157
보디빌딩	1567	291	1710	258	104	8
사격	520	141	3589	1246	571	153
배구	738	388	2505	904	466	80
육상	6189	1211	5561	2156	1857	403
태권도**	190	29	12117	3618	1364	144

*출처: 광정현(2019). 양성평등사회에서 여성스포츠 심판의 인권과 정책제안.

한국여성스포츠회 토크콘서트 발표자료.

이선희, 광정현(2019). 여성 스포츠 선수의 성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

**태권도는 2019년 상임심판의 수이며, 겨루기와 품새를 합산한 수입.

도자 비율이 전체의 약 17%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아직까지 여성심판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 여성 스포츠 심판의 현실에 대한 인식

여성심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은 <표 2>와 같은데 먼저 대범주는 심판자격 부여 및 위촉, 심판 환경 내 어려움, 심리적인 부분, 여성심판을 위한 자리마련으로 구분되었고, 이에 대한 중범주로 심판자격 취득 및 위촉시에 불평등을 겪는다고 생각하였고, 숙소문제로 인한 어려움, 심판활동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심판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생계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심판으로서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고 심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종목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여성심판들의 권익 보호 및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전난희(2017)의 “여성 태권도 심판의 직업적 삶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 태권도 심판의 ‘희노애락’을 살펴보았는데 ‘희(喜)’로서 심판으로서의 전문성 향상, 주위로부터의 인정이 있었지만, ‘노(怒)’로서 남성 심판과의 성차별, 심판간의 구별짓기가 있었으며, ‘애(哀)’로 역할 갈등의 속상함, 보상에 대한 실망감 등이 있었다. 하지만 ‘락(樂)’으로서 가사로 부터의 탈출구, 동료 심판과의 연결망등이 있었다.

황은지(2015)는 ‘여성배구심판들의 권력지향과 권력저항의식’에서 여성배구심판들이 받는 차별로 불합리함 심판 승급과정, 불평등한 경기 배정, 보조적 역할로서의 여성심판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응답한 심판들의 인식과 동일한 것으로 아직까지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심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여성의 비율을 30%에 맞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스포츠 현장에서는 여성선수의 비율이 약 23%이기 때문에 지도자나

표 2. 여성심판의 현실에 대한 인식

대범주	중범주	내용
심판자격 부여 및 위촉	심판자격부여의 불평등	남성들에게 심판자격 정보를 먼저 추천함 지도자들이 권유하지 않음
	심판 위촉의 어려움	심판위촉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심판 환경 내 어려움	숙소문제	숙소 사용 시 여성심판이 홀수가 되면 숙소배정의 어려움으로 여성 심판을 위촉하지 않음 숙소문제로 눈치가 보임
	여성 무시 발언	식사시 물심부름, 커피심부름
	생계의 어려움	심판으로 생계가 되지 않음 경기가 규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기 상태임
	위축감	여성심판수가 적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됨
심리적인 부분	자부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부심 하나임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희망
여성심판을 위한 자리 마련	다른 종목과의 교류	다른 종목 심판과의 교류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 심판들 간의 정보 공유를 희망

임원, 심판의 비율을 30%에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능력여부를 떠나 심판으로서의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여성 스포츠 심판 관련 연구

〈표 3〉은 여성심판 관련연구로서 2019년 11월까지 발표된 심판관련 연구는 약 100여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심판 관련연구는 학위논문 4편, 학술지 논문 5편으로 나타났다. 5편 중 3편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로서 실질적으로는 약 6편 정도로 볼 수 있다.

여성심판관련 연구의 주제를 보면 여성심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의식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황은지(2015), 황은지, 임수원, 권기남(2015)의 ‘여성배구심판들의 권력지향과 권력저항 의식’은 여성배구심판들이 받는 차별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권력지향, 그리고 권력저항에 대하여 다루었고, 김성룡(2015), 김성룡, 신석민, 이혁기(2016)는 ‘여성유도심판의 심판활동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여성유도심판

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내적갈등과 불평등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전난희(2017)는 ‘여성태권도심판으로의 삶, 여성 태권도 심판으로 살아가기’에서 여성태권도심판으로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살펴보았다. 최상희(2015)는 ‘여성태권도 경기심판의 심판 경험탐색’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심판활동 속에서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을 살펴보았다. 홍은아, 함정혜(2013)는 ‘심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 여성 축구심판들의 경험탐색’을 통해 심판으로 활동하기 전후의 성격변화 및 대인관계를 알아보고, 여성심판으로서의 애환, 가정과 직장에서의 위치 등을 살펴보았다. 이준길, 박창범, 박근란(2017)은 ‘여성복싱심판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의식 형성과정’을 통해 심판직업선택 과정, 여성심판으로서의 정체성, 직업의식, 사회적 갈등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여성심판으로서 활동하면서 겪는 다양한 갈등, 즉 가정과 일의 양립에 따른 갈등, 여성심판이기에 겪는 불평등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표 3. 여성심판 관련연구

	제목	저자	연도
	여성 태권도 심판으로 살아가기	전난희	2017
학위 논문	여성배구심판들의 권력지향과 권력저항 의식	황은지	2015
	여성태권도 경기심판의 심판 경험 탐색	최상희	2015
	여성 유도심판의 심판활동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자아의 재확립	김성룡	2015
	심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 여성 축구심판들의 경험 탐색	홍은아, 함정혜	2013
	여성 태권도 심판의 삶에 대한 연구	전난희	2017
학술지 논문	여성배구심판들의 권력지향과 권력저항 의식: 제3세계 페미니즘 관점을 중심으로	황은지, 임수원, 권기남	2015
	여성 유도심판의 심판활동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김성룡, 신석민, 이혁기	2016
	여성복싱 심판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의식 형성과정	이준길, 박창범, 박근란	2017

Ⅲ. 폭력에 노출된 여성 스포츠 심판

1. 미디어의 폭력에 노출된 여성심판

미디어는 스포츠의 대중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여성들의 스포츠 사회화 및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현정,곽정현, 2009).

그러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여성 스포츠 선수의 형태는 성적으로 고정된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보도분량에서도 성별 간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Duncan & Messner, 1998; Eastman & Billings, 1999; Boyle, 2006; Hardin, Dodd, & Lauffer, 2005; 유상건, 2016). 유네스코에서는 여성 선수 실력보다 외모를 부각한 언론이 문제이며, 성평등하게 보도해야 한다(이세아, 2018a)고 하였으며,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여성 선수의 성취보다는 ‘미녀 대결, 몸매 비결’ 등에 집중하면서 성차별 올림픽 보도는 여전하였다(이세아, 2018b).

이러한 여성스포츠에 대한 미디어의 형태는 여성심판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여성심판과 관련하여 검색해보면 각종 스포츠에서 종목별 최초의 여성심판에 대한 내용, 즉 “2019UEFA 슈퍼컵, 사상 첫 여성 심판 운영”(노컷뉴스, 2019, 8월 14일), “분데스리가 1부 최초의 여성 심판이 탄생했다”(허핑턴 포스트, 2017, 9월 13일), “김민경, 이슬기 심판, 한국 여성 심판 최초 AFC 남자 경기 배정”(스포츠 W, 2019, 5월 14일)과 “호주의 3대 구기 스포츠 종목인 축구, 크리켓, 럭비 경기장에 여성심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기사는 스포츠 현장에서 여성심판의 역할이 증가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성심판을 향한 미디어의 성차별은 여성스포츠의 다른 분야와 다를 바가 없다. “폴란드

미녀 축구 심판, 외모 덕 좀 봤다(?)”(엠스플 편집팀, 2017)는 기사나 “축구 선수 바지 벗게 한 22세 여성 심판, ‘화끈 비키니’.”(김우중, 2019), “축구장 여신?! 미모의 브라질 여자 심판”(스포탈코리아, 2020) 등은 여성심판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외모에 중점을 둔 내용이다. 이러한 형태는 여성스포츠를 통한 지나친 상업화, 외모지상주의라는 문제점(곽정현, 이선희, 2014)을 여성심판의 현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스포츠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활약보다는 외모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줄 뿐이라 사료된다.

2. 여성심판을 향한 폭력

여성스포츠인에 대한 폭력의 형태 또한 여성심판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현장에서의 폭력은 선수를 중심으로 다루어졌고, 남성 선수의 경우는 대부분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여성선수에 대한 폭력은 성폭력도 다수를 차지한다. 심판현장에서도 남성심판들에게는 폭력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폭력의 형태가 많지만, 여성심판에게는 성적인 폭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예를 보면, “아스날 유스 감독, 10대 여성 심판에 성적인 폭언으로 징계 처분(홍성빈, 2019)”을 받았다거나, “여성심판 앞에서 바지내린 14살 축구선수... ‘출전금지 1년’”(이원준, 2019), “여성 심판들 치마 입어라...당구 성차별 논란”(김유빈, 2019), “딸에게도 그런 욕을 하겠냐고 묻고 싶다”(김령선, 2007)는 등 다수의 폭력관련형태가 여성의 ‘성’에 관한 형태였다.

2019년 초반, 유명쇼트트랙선수의 미투이후, 스포츠계에서 폭력 및 성폭력의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스포츠계

의 자정노력을 통해 여성스포츠인들의 인권향상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점에서 어쩌면 여성스포츠인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분야가 심판분야라고 볼 수 있다. 경기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심판의 권위와 권력으로 인해 심판에게는 고충이 선수와 지도자만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여성심판을 향한 폭력은 클린스포츠를 지향하는 현 스포츠계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본다.

IV. 여성스포츠심판의 미래를 위한 정책제안

여성스포츠심판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양성평등사회라고 불리는 현 시대에 여성심판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투명한 심판 선발을 위한 블라인드 선발

일반적인 블라인드 채용은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성별, 학력 등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스포츠심판의 경우는 스포츠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을 제외한 성별, 학력, 출신지역등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심판으로의 과정에서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심판교육의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남성 지도자들의 추천에 의해서 심판자격교육에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자격교육은 정확히 각 협회나 체육회에 공지가 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해 구전 추천

이 일어나는 것으로 공평한 기회가 주어 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판의 여성비율을 무조건적으로 높이는 것보다 자격연수 참여를 독려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둘째, 여성심판의 장점에 대한 인식전환

협회차원에서의 여성심판을 위촉할 경우 행정적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한 예로 여성 심판을 위촉하였을 때 숙소의 배정에도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심판들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남녀 차별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협회들은 여성심판의 이점을 생각해보고 행정적 경제적 손실이라는 인식보다는 경기의 안정화 보편화 여성 선수의 긴급적 조치에 투입될 심판으로의 인식전환을 해보기를 바란다.

셋째, 심판 배정에 대한 공정성 강화

연구결과를 통해 심판이 자격이 부여가 되었더라도 정작 심판위촉을 받지 못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현재 많은 협회의 심판위촉 시스템은 심판위원장 혹은 상임심판이 추천을 통해 심판이 위촉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남녀 심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 같지만 면담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심판위원장 혹은 상임심판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 그분들이 추천하는 심판은 아무래도 남성심판을 위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심판들이 심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러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천제

심판배정의 방법을 지정 혹은 경력에 따른 랜덤제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을 제시해 본다. 기존 추천 방식은 추천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이것은 때에 따라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경력과 심판활동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연차별 랜덤 배정을 해보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넷째, 여성심판 관련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현재 여성심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심판 관련연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심판의 활동영역이 한정적이며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심지어 여성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스포츠제도권에서 여성심판 관련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심판교육시 심판인권관련교육 강화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기관련 교육에서는 선수나 지도자의 인권관련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심판의 인권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실정이었다. 경기에서 심판은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며, 객관적인 판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나 선수와 달리 경기에서의 '권력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심판의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심판의 인권도 중요하며, 선수나 지도자와 달리 심판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심판들이 경기장의 포청천으로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들의 인권 또한 존중해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여성심판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양성평등사회라고 불리는 현 시대에 여성심판의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여성스포츠심판의 현황은 전체 심판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심판들은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편견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스포츠관련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여성심판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여성스포츠심판은 다른 여성스포츠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미디어에서는 그들의 역량보다는 외모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성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셋째, 이러한 여성스포츠심판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심판선발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여성심판의 장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직무를 부여하며, 심판배정에 공정성을 두어야 한다. 또한 여성심판관련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심판인권교육의 강화를 통해 여성심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 불리우며, 이제는 남녀의 장벽이 거의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성중심의 스포츠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편견에 꺼내든 ‘엘로카드’ 여성심판의 도전 (EBS, 2017)”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성스포츠라 불리는 다양한 종목에서 여성심판들이 활약하고 있는 시기가 되었다.

정의의 구현하는 신, 한손에는 선과 악을 가리는 정의의 저울을, 다른 한손에는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는 그 신, 디케는 여신이다. 세상의 공정함을 판단하는 신이 여신인 것처럼, 스포츠현장에서 여성 심판은 공정함과 편견없는 심판의 모습으로 스포츠현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광정현(2019). 양성평등사회에서 여성스포츠 심판의 인권과 정책제안. 한국여성스포츠학회 토크콘서트 발표자료.
2. 광정현, 이선희(2014). 미디어에 투영된 여성 스포츠 선수의 외모. 한국체육철학회지, 제22권 제1호, 51-68.
3. 광정현, 이선희(2015). 스포츠에서 정의의 딜레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4권 제4호, 11-19.
4. 국립국어원(2019). 표준국어대사전.
5. 김령선(2007, 10월 22일). 딸에게도 그런 욕을 하겠냐고 묻고 싶다. 태권도신문.
6. 김성룡(2015). 여성 유도심판의 심판활동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자아의 재확립.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7. 김성룡, 신석민, 이혁기(2016). 여성 유도심판의 심판활동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코칭능력개발지, 제18권 제1호, 55-66.
8. 김우중(2019, 6월 18일). 축구 선수 바지 벗게 한 22세 여성 심판, '화끈 비키니'. 스타뉴스.
9. 김유빈(2019). "여성 심판들 치마 입어라"...당구 성차별 논란. 뉴스A.
10. 김찬영(2019, 5월 14일). 김민경, 이슬기 심판, 한국 여성 심판 최초 AFC 남자 경기 배정. 스포츠 W.
11. 김현유(2017, 9월 13일). 분데스리가 1부 최초의 여성 심판이 탄생했다. 허핑턴포스트.
12. 대한체육회(2019). 회원종목단체 현황.
13.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14. 서경화(2014). 심판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실천방안.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8권 제3호, 61-70.
15. 성현숙, 박규호, 이민수, 김형민(2019, 12월 29일). 그리스로마신화 인물백과.
16. 스포탈코리아(2020, 1월 10일). 축구장 여신?! 미모의 브라질 여자 심판. 스포탈코리아.
17. 엠스플 편집팀(2017, 11월 1일). 폴란드 미녀 축구 심판, 외모 덕 좀 봤다. 엠스플뉴스.
18. 오해원(2019, 8월 14일). 2019UEFA 슈퍼컵, 사상 첫 여성 심판 운영. 노컷뉴스.
19. 유상건(2016). 여성,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30권 제4호, 39-53.
20. 이선희, 광정현(2019). 여성 스포츠 선수의 성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4호, 123-132.
21. 이세아(2018, 2월 10일) 여성 선수 실력보다 외모를 부각한 언론이 문제...성평등 보도해야. 여성신문.
22. 이세아(2018, 2월 25일). 여성 선수의 성취보다 '미녀 대결, 몸매 비결' 집중... 성차별 올림픽 보도 여전. 여성신문.
23. 이원준(2019, 5월 30일). 여성심판 앞에서 바지 내린 14살 축구선수출전금지 1년. 뉴스원.
24. 이준길, 박창범, 박근란(2017). 여성복싱 심판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의식 형성과정.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6권 제5호, 205-215.
25. 이현정, 광정현(2009). 신문기사를 통해 본 여성 스포츠.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3권 제4호, 159-172.
26. 전난희(2017). 여성 태권도 심판으로 살아가기.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7. 전난희(2017). 여성 태권도 심판의 삶에 대한 연

- 구. 국기원태권도연구, 제8권 제4호, 97-126.
28. 최상희(2015). 여성태권도 경기심판의 심판 경험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9. 최영옥(2012). 핵심 스포츠사회학. 대경북스.
 30. 한국스포츠개발원(2016).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심판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31. 홍성빈(2019, 6월 14일). 아스날 유스 감독, 10대 여성 심판에 성적인 폭언으로 징계 처분. 스포츠니어스.
 32. 홍은아, 함정혜(2013). 심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 여성 축구심판들의 경험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7권 제2호, 65-78.
 33. 황은지(2015). 여성배구심판들의 권력지향과 권력저항 의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34. 황은지, 임수원, 권기남(2015). 여성배구심판들의 권력지향과 권력저항 의식: 제3세계 페미니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제5호, 105-117.
 35. Boyle, R.(2006). Sports journalism: Context and issues. Thousand Oaks, CA: Sage.
 36. Duncan, M. C., & Messner, M. A.(1998). The media image of sport and gender. In L. A. Wenner (Ed.), Media Sport (pp. 170-185). New York: Routledge.
 37. Eastman, S. T., & Billings, A. C.(1999). Gender parity in the Olympics: Hyping women athletes, favoring men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3(2), 140-170.
 38. EBS.(2017). 편견에 꺼내든 ‘엘로카드’ 여성 심판의 도전. 금녀의 벽 기획 7편. 9월 26일 방송.
 39. Hardin, M., & Shain, S.(2005). Strength in-numbers? The experiences and attitude of women in sports media career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2(4), 804-819.
 40. Robert, S., Weinberg, T., & Richardson, D. (1987). Psychology of officiating. Leisure Press.

논문투고일 : 2020. 04. 30

논문심사일 : 2020. 05. 21

심사완료일 : 2020. 05. 31